W22

몽골 제국과 교류의 확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던 몽골인들은 어떻게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을 세웠을까요? 몽골의 정복 전쟁은 큰 피해를 남겼어요. 한편 제국을 오가는 길을 따라 사람과 상품, 지식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동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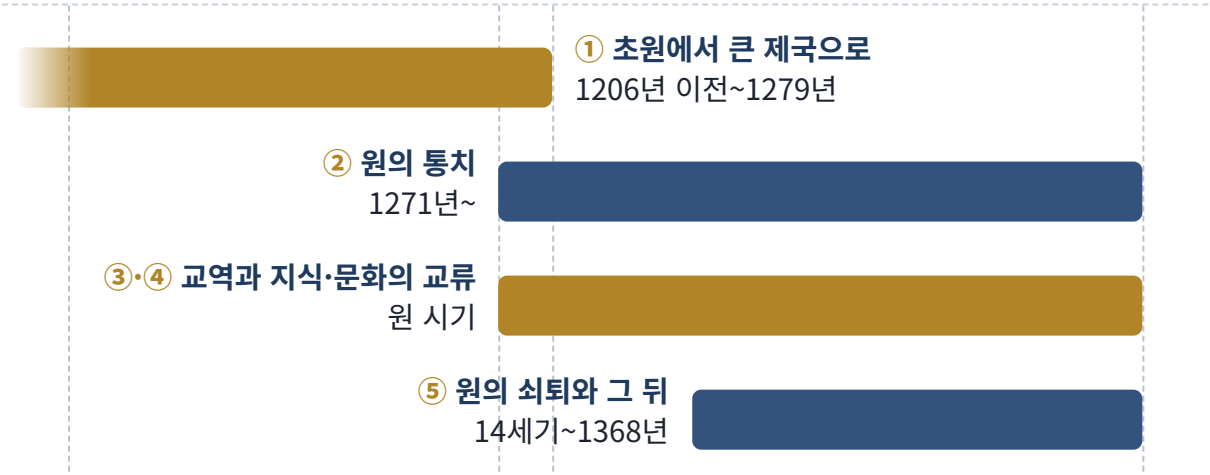
몽골 제국의 성장과 원의 중국 지배

1206
칭기즈 칸, 몽골 제국 수립

1271
쿠빌라이 칸, 국호를 원으로 정함

1279
남송 정복·중국 통일

1368
명 건국·원 세력의 북쪽 이동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단원의 질문

① 초원에서 큰 제국으로

유목 생활 Q01 → 부족 통합 ·1206 Q02 → 정복의 힘 Q03 → 정복의 확대 Q04 → 여러 울루스로 나뉨 Q05 → 원·1271, 중국 통일 ·1279 Q06

Q01 몽골인들은 왜 한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했나요?

답 기르던 가축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아, 계절에 따라 생활하는 곳을 옮겼기 때문이에요.

몽골 초원에는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양·말·소 같은 가축을 기르며 고기와 젖, 털과 가죽을 얻었어요. 이렇게 가축을 기르며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유목**이라고 해요.

같은 풀밭에서 가축을 오래 먹이면 풀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추위와 물의 사정도 계절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집을 옮길 수 있어야 했어요. **게르**는 나무 뼈대에 털을 눌러 만든 두꺼운 덮개를 씌운 집으로, 해체하여 옮긴 뒤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초원의 유목 생활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왼쪽에는 게르가 있고, 가운데 사람들은 집을 덮는 두꺼운 재료를 말고 있어요. 오른쪽 수레에는 덮개와 나무 기둥이 실려 있어요. 뒤쪽의 양과 말은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을 나타내요.

✕ 유목 = 갈 곳 없이 떠도는 생활

○ **유목 = 계절마다 가축이 먹을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생활**

Q02 칭기즈 칸이 몽골이라는 민족을 처음 만든 건가요?

답 **아니에요. 이미 초원에서 살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강한 정치 세력으로 묶었어요.**

당시 초원에는 여러 부족이 있었고,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테무친은 경쟁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 부족을 자신의 지배 아래 모았어요.

1206년 테무친은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어요. 교과서에서 말하는 '몽골 제국의 수립'은 이때를 가리켜요.

✕ 1206년 = 중국과 서아시아까지 차지한 해

○ **1206년 = 초원의 여러 부족을 하나로 묶은 해**

낱말

부족 혈연이나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뭉친 사람들의 집단
추대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받드는 것
칸 지배자를 부르는 칭호

Q03 말을 잘 타는 것만으로 큰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나요?

답 **아니에요. 빠르게 움직이는 기마병에 더해, 군대를 조직하고 함께 움직이게 하는 능력과 여러 지역의 기술이 중요했어요.**

몽골의 기마병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활을 쏘는 데 능숙했어요. 그러나 병사들이 각자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큰 군대와 싸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칭기즈 칸은 사람들을 10명·100명·1,000명·10,000명 단위로 조직했어요. 이렇게 천 명 단위의 조직인 **천호**를 중심으로 군사와 백성을 묶은 제도를 **천호제**라고 해요. 각 단위의 지휘자가 명령을 전달하여 여러 부대가 함께 움직이도록 했어요. 정복 과정에서는 다른 지역 출신 병사와 기술자도 활용했어요. 성을 공격할 때에는 돌을 던지는 기구 같은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군사 조직의 크기와 명령

편성

10명씩 묶음 → 100명 → **1,000명(천호)** → 10,000명

각 단위에 지휘자가 있음

명령

큰 부대의 지휘자 → 작은 부대의 지휘자 → 병사

정복을 뒷받침한 힘

빠르게 이동하는 기마병 +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사 조직 + 다른 지역의 병력·기술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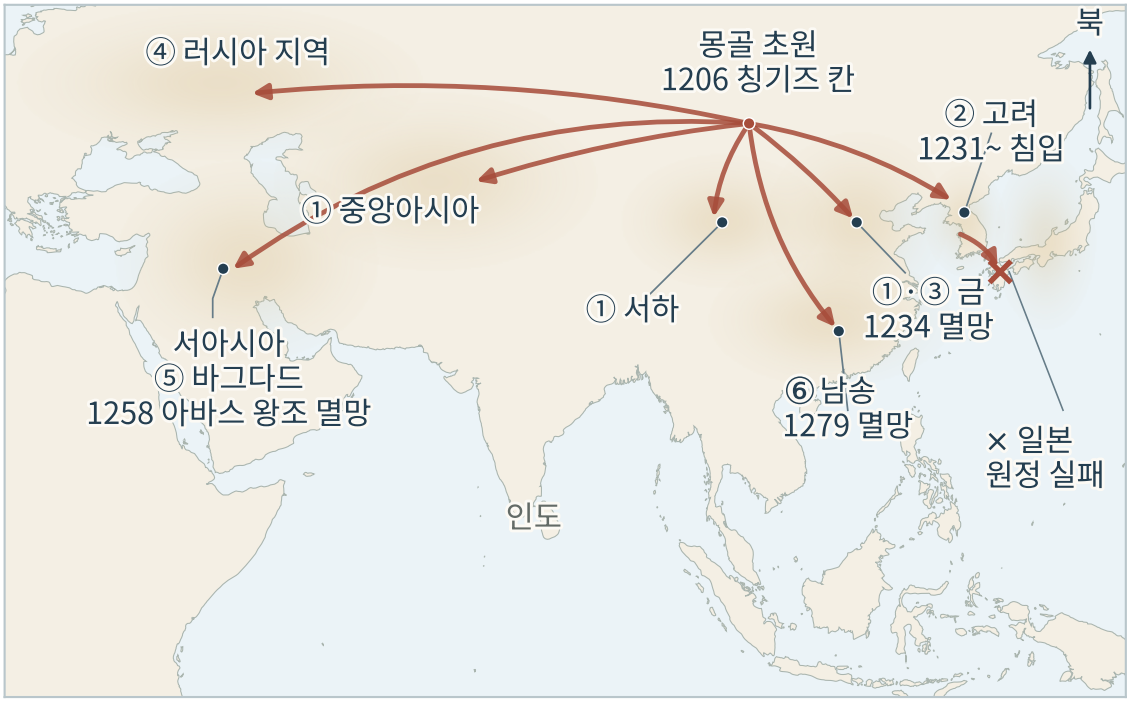
넓은 지역으로 정복을 확대

낱말 | **기마병**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Q04 칭기즈 칸 한 사람이 제국의 모든 땅을 정복했나요?

답 아니에요. 칭기즈 칸이 세력을 넓힌 뒤에도 자손과 후계자들이 정복을 이어 갔어요.

몽골의 정복 전쟁



진출 방향 × 실패한 원정

옅은 색: 나라·지역의 대략적인 위치

> 화살표는 진출 방향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고, 실제 행군로가 아니에요. 옅은 음영은 나라·지역의 대략적인 위치이며 국경이 아니에요. ①~⑥과 ×는 아래 표와 연결돼요.

서하는 중국 북서부에 있던 나라이고, 금은 여진족이 중국 북부에 세운 나라였어요. 칭기즈 칸은 이 나라들을 공격하고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넓혔어요. 그가 죽은 뒤에도 뒤를 이은 지배자들의 군대가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넓은 제국을 이루었어요.

지도	누가	언제	어디로
①	칭기즈 칸	13세기 초	서하·금 공격, 중앙아시아 진출
②	후계자들	1231년부터	고려 침입
③	후계자들	1234년	금을 무너뜨림

지도	누가	언제	어디로
④	후계자들	1230~1240년대	러시아 지역과 동유럽 일부로 진출
⑤	후계자들	1258년	바그다드 점령,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림
⑥	쿠빌라이 칸	1279년	남송을 무너뜨림(중국 통일)
✕	쿠빌라이 칸	13세기 후반	일본 원정 — 실패

✕ 몽골이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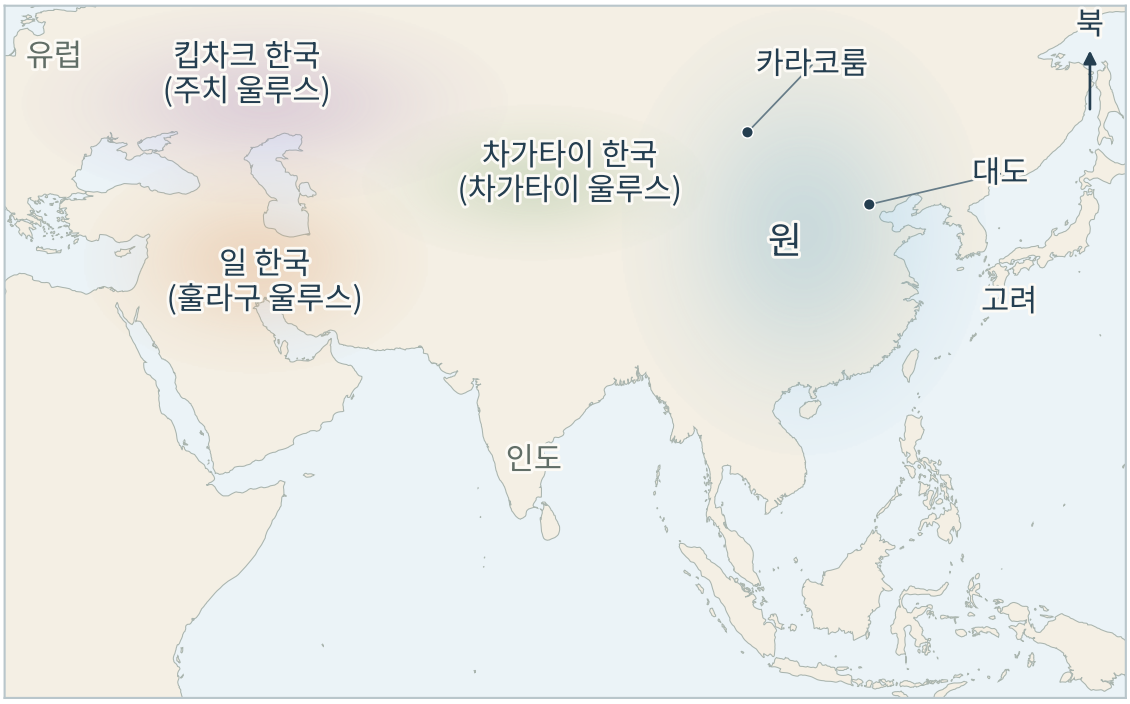
○ **일본 원정처럼 실패한 전쟁도 있었다.**

Q05 몽골 제국과 원은 같은 나라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가요?

답 **완전히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는 않아요. 원은 몽골 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주요 세력 가운데, 중국과 몽골 고원 등을 다스린 왕조예요.**

제국이 넓어지면서 칭기즈 칸의 자손들은 여러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어요. 지도자 자리를 둘러싼 다툼도 일어나, 각 지역 세력은 점차 독자적으로 움직였어요. 교과서에서는 이들 세력을 **울루스** 또는 **한국**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들은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몽골 제국의 주요 세력



13세기 후반~14세기 초 · 주요 세력의 위치

옅은 색: 세력이 자리 잡은 대략적인 지역

> 색이 번진 부분은 주요 세력이 자리 잡은 대략적인 지역으로, 국경선이나 최대 영토가 아니에요.
> 오고타이 한국 등 다른 세력도 있었으며, 해안선은 현대 지형을 바탕으로 했어요.

세력	교과서의 다른 이름	주로 다스린 지역
원	—	중국·몽골 고원 등
차가타이 한국	차가타이 울루스	중앙아시아
킵차크 한국	주치 울루스	러시아 남부 등
일 한국	훌라구 울루스	이란 등 서아시아

✕ 원 = 몽골 제국 전체

◎ **원 = 몽골 제국에서 나온 여러 세력 가운데 중국·몽골 고원 등을 다스린 나라**

낱말

울루스 몽골 말로 '나라' 또는 '한 지배자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한국(汗國) 칸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한국(韓國)과는 다른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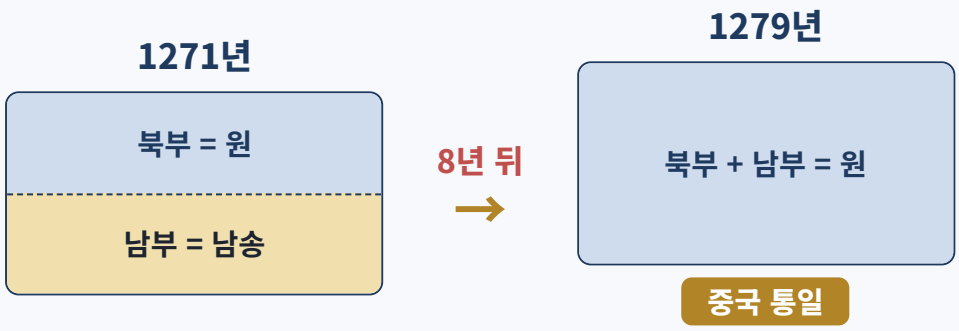
Q06 원을 세운 해는 1271년인데, 왜 중국 통일은 1279년인가요?

답 쿠빌라이 칸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정한 뒤에도, 남쪽에는 남송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쿠빌라이 칸은 칭기즈 칸의 손자예요. 그는 오늘날 베이징인 **대도**를 수도로 삼고, 1271년에 국호를 **원**으로 정했어요.

남송은 금에 밀려 중국 남부로 옮겨 간 송 왕조예요. 이때 중국 북부는 몽골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남부에는 남송이 있었어요. 원은 1279년에 남송을 무너뜨리고 중국 전역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국호를 원으로 정함'과 '중국 통일'의 연도가 달라요.

이름을 정한 때와 통일한 때



낱말 | **국호** 나라의 이름

② 원은 중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중국식 통치 제도를 받아들임	몽골인의 우위를 지킴 = 몽골 제일주의
Q07	Q08~Q10

Q07 유목민이 세운 원은 중국도 초원처럼 다스렸나요?

답 아니에요. 농사짓는 많은 사람과 도시를 다스리기 위해 중국의 통치 제도도 받아들였어요.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이끄는 일과, 넓은 농경지에서 세금을 거두고 도시를 관리하는 일은 달랐어요. 원은 중앙과 지방에 관청을 두고 관리들이 행정 업무를 맡게 했어요.

원의 지배층은 몽골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중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제도와 인재를 활용했어요.

■ **초원과 중국의 통치**

초원을 다스릴 때	중국을 다스릴 때
가축을 기르며 이동하는 사람들을 이끎	농경지에서 세금을 거두고 도시를 관리함 ↓ 중앙·지방에 관청을 두고 관리가 행정을 맡음
받아들인 것 = 중국식 통치 제도	**지킨 것** = 몽골의 풍습과 지배층의 지위

낱말 | **행정** 세금을 거두거나 주민을 관리하는 등 나라를 운영하는 일

Q08 '몽골 제일주의'는 몽골인이 무엇이든 가장 잘했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몽골인을 가장 우대하고, 다른 집단과 차이를 두어 다스린 정책을 뜻해요.

지배하는 몽골인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몽골인은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는 데 유리했고, 다른 집단은 관리가 되는 기회나 법의 적용 등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이 구분은 당시 지배자가 만든 차별이에요. 한인과 남인도 관리가 될 수는 있었지만, 몽골인·색목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어요.

집단	주로 누구인가	원에서의 대우
몽골인	원을 세운 지배 집단	가장 우대, 중요한 관직을 차지
색목인	중앙아시아·서아시아 등 여러 지역 출신	우대, 재정·행정 실무를 맡음
한인	금의 지배를 받던 중국 북부 주민(한족·거란인·여진인 등)	차별
남인	남송의 지배를 받던 중국 남부 주민	가장 심한 차별

✗ 제일 = 능력이 1등

◎ **제일 = 정치적으로 가장 우대**

낱말 | **관직** 관리의 자리

Q09 색목인은 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인가요?

답 여기서 색목인은 눈 색깔로 나눈 집단이 아니라, 주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등에서 온 여러 출신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원은 이들 가운데 상업 경험이 많거나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재정과 행정 업무에 활용했어요.

몽골 지배층에게는 한인·남인과 다른 출신의 사람들을 활용하여, 다스림을 받는 지역의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었어요.

✕ 색목인 = 눈 색깔이 다른 한 민족

○ **색목인 = 여러 지역 출신을 묶어 부른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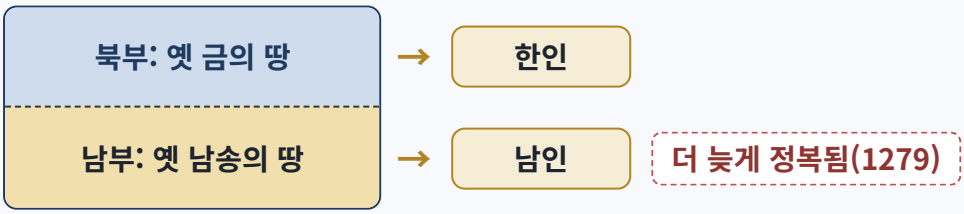
낱말 | **재정** 나라가 돈과 물자를 거두고 쓰는 일

Q10 한인과 남인은 왜 따로 나누었나요? '한인'은 한국인인가요?

답 원은 그 사람들이 몽골에 정복되기 전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한인과 남인을 나누었어요. 한인(漢人)은 오늘날의 한국인(韓國人)과 다른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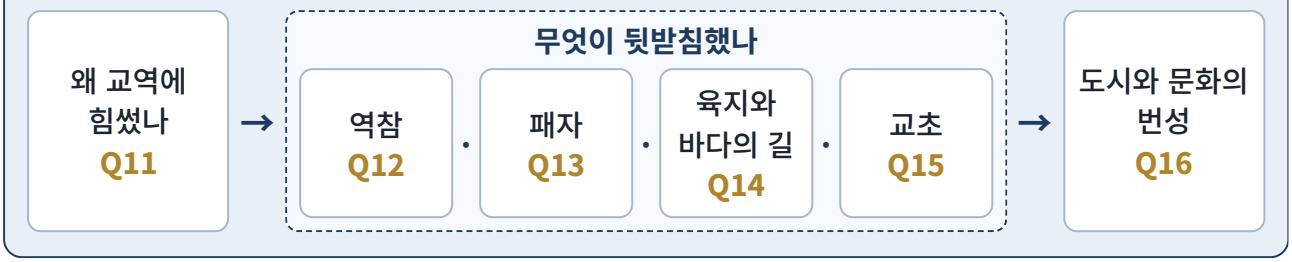
한족도 북부에서 살며 금의 지배를 받았는지, 남부에서 남송의 지배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었어요. 원은 자신들에게 더 늦게 정복된 남인을 특히 불리하게 대했어요.

■ **옛 나라의 영역과 원의 집단 구분**



낱말 | **한족** 중국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민족

③ 사람과 상품이 오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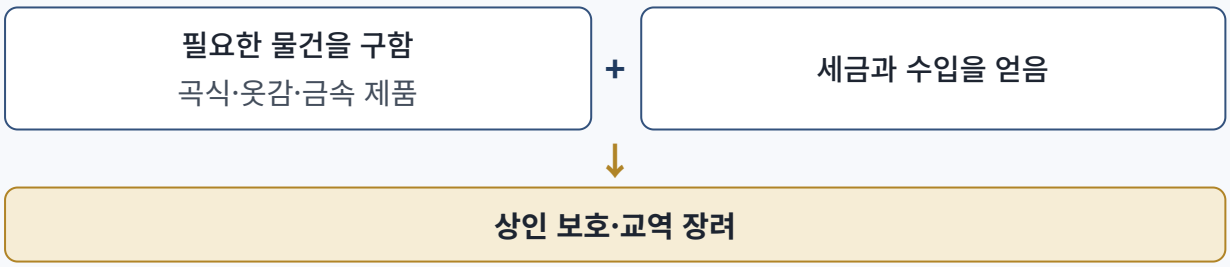
Q11 몽골은 전쟁으로 땅을 넓혔는데, 왜 교역에도 관심을 가졌나요?

답 필요한 물건을 구하고, 상업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입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목 생활에서 얻는 고기·젖·털만으로 모든 필요한 물건을 마련할 수는 없었어요. 곡식·옷감·금속 제품 등을 다른 지역과의 거래로 구할 수 있었어요.

제국이 넓어진 뒤에는 지배자와 도시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많아졌어요. 몽골 지배자들은 상인을 보호하고 교역을 장려했어요. 길이 정비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 상인뿐 아니라 나라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교역에 힘쓴 까닭



낱말 | **교역** 지역 사이에 물건을 사고파는 일

Q12 역참은 오늘날의 휴게소 같은 곳이었나요?

답 쉬고 물자를 얻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본래 나라의 연락과 공적인 이동을 돕는 교통·통신 시설이었어요.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명령과 소식을 먼 곳까지 보내야 했어요. 말 한 마리로 계속 달릴 수는 없으므로, 주요 길을 따라 말을 갈아타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곳을 두었어요. 이것이 **역참**이에요. 여러 역참이 이어지면 먼 곳까지 이동하고 연락하기가 쉬워졌어요.

역참의 말과 음식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주변 주민들의 노동과 물자가 필요했어요.



> 역참에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왼쪽 말은 물을 마시며 쉬고, 가운데 사람은 오른쪽의 다른 말로 갈아타려 해요. 뒤쪽의 먹이와 건물은 말과 사람에게 필요한 물자를 마련해 두었음을 보여 줘요.

역참을 통한 연락

출발 → **첫 역참** 말을 갈아탐·물자 보급 → **다음 역참** 다시 말을 갈아탐·물자 보급 → **먼 지역에 소식 전달**

Q13 역참에서는 누구나 말을 빌리고 공짜로 잘 수 있었나요?

답 아니에요. 역참은 이용할 자격을 인정받은 사신·관리 등이 쓰는 시설이었어요.

패자는 지배자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 교과서에서는 통행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패자 등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정해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허가받은 상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13세기 후반에 만든 실제 패자예요. 금속판에 새긴 글은 황제의 명령과 권위를 나타내요. 위쪽에는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1993.256), 공공 영역 공개 사진이에요.

✗ 누구나 역참에서 말을 빌리고 잘 수 있었다.

◎ **패자 등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용했다.**

낱말 | **사신** 나라의 뜻을 다른 지배자에게 전하기 위해 보내는 사람

Q14 몽골은 말을 타던 사람들이니까 교역도 육지에서만 했나요?

답 **아니에요. 육지의 교역로뿐 아니라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바닷길도 활발했어요.**

중국과 서쪽 지역을 잇던 **초원길과 비단길**은 몽골 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몽골은 기존 길들을 이용하고 정비하여 교류를 확대했어요.

바다에서는 송 때부터 발달한 **취안저우** 같은 중국 동남부의 무역항이 계속 번영했어요. 육지의 유라시아 교역망과 바다의 인도양 교역망이 연결되었어요. 이것을 **유라시아·인도양 교역권**이라고 해요.

육지와 바다로 이어진 교역



> 선은 여러 교역로의 대표적인 연결 방향을 단순하게 나타내며, 한 여행자의 실제 이동 경로가 아니에요. 중국의 내륙 도시와 항구를 잇는 길을 통해 육지의 교역과 바다의 교역이 이어졌어요.

길	어디를 지나나	언제부터
초원길	북쪽 초원 지대	몽골 이전부터
비단길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	몽골 이전부터
바닷길	중국 동남부 항구–동남아시아–인도양	몽골 이전부터, 송 때 크게 발달



원의 취안저우에서 이루어진 해상 교역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왼쪽에서는 그릇을 포장하고, 오른쪽에서는 짐을 배에 실으려 해요. 가운데에는 옷감을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구는 육지에서 모인 상품을 바닷길과 이어 주는 곳이었어요.

✗ 몽골이 이 길들을 처음 만들었다.

◎ **이미 있던 길을 정비하고 이어서 교류를 넓혔다.**

✗ 교역권 = 몽골의 영토

◎ **교역권 = 거래로 이어진 지역의 범위**

낱말

유라시아 육지로 이어진 유럽과 아시아를 함께 부르는 말
무역항 다른 지역과 상품을 거래하는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교역권 서로 거래로 이어진 지역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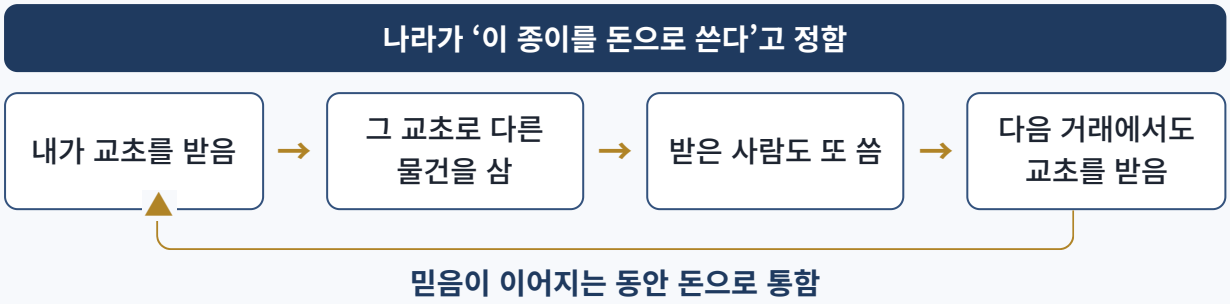
Q15 종이에 불과한 교초를 왜 돈으로 받았나요?

답 **나라가 돈으로 쓰도록 정하고, 사람들이 다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교초는 원에서 널리 사용한 지폐예요.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했어요. 지폐는 무거운 금속 돈을 많이 들고 다니는 부담도 줄여 주었어요.

원은 중국 여러 지역에 교초의 사용을 확대했어요. 교초가 유라시아와 인도양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통용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교초가 돈으로 통하려면



✕ 원이 지폐를 처음 만들었다.

◎ **앞선 송에서도 지폐를 썼고, 원은 교초를 널리 쓰게 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이름	무엇인가	하는 일
역참	길가의 교통·통신 시설	말·음식·잠자리 등을 제공
패자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정해진 도움을 받을 자격을 표시
교초	원에서 널리 쓴 지폐	물건을 사고팔 때 돈으로 사용

Q16 교역이 늘어나면 도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시장과 수공업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면서, 공연을 즐기는 도시 문화도 발달했어요.**

상인과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활동하며 도시가 번성했어요. 원에서는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목화 재배를 확대했어요. 농촌에서 생산한 곡식과 재료,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상품은 도시의 생활과 거래를 뒷받침했어요.

도시에서는 **잡극**이 유행했어요. 잡극은 노래·대사·춤·연기가 어우러진 공연이에요. 잡극의 대본과, 가락에 맞추어 부르던 노래 가사를 통틀어 **원곡**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공연을 하는 사람과 돈을 내고 즐기는 관객이 만나기 쉬웠어요.

농촌과 교역이 도시 생활을 뒷받침

농촌
농업 기술 보급·목화 재배 확대

+

교역
여러 지역의 상품

→

도시 번성
상인·장인

→

서민이 즐기는 문화
잡극



원대 도시의 잡극 공연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무대 가운데 배우는 노래하고, 옆의 배우들은 몸짓으로 연기하며, 왼쪽 사람은 북을 쳐요. 앞쪽에는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정 공연이나 극장을 그대로 복원한 그림은 아니에요.

낱말

목화 솜을 얻는 식물
장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④ 물건과 함께 이동한 지식과 문화

사람 Q17 · 종교 Q18 · 과학 Q19 · 기술 Q20 — 교류의 두 얼굴 Q21·Q22

Q17 먼 길을 간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팔러 간 상인이었나요?

답 아니에요. 상인뿐 아니라 사신·선교사·여행자 등 여러 사람이 오갔어요.

종교를 전하려는 목적과 지배자 사이의 외교 목적이 함께 있는 여행도 있었어요.

인물	언제	어떤 사람	무엇으로 알려졌나
카르피니	13세기 중반	교황이 보낸 크리스트교 수도사	사절로 몽골 지배자를 만나러 감
마르코 폴로	13세기 후반 (쿠빌라이 칸 때)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 상인·여행자	원을 다녀온 경험 등을 담은 『동방견문록』
이븐 바투타	14세기 중반	북아프리카 모로코 출신 이슬람교도 여행자	여러 지역의 여행 경험과 중국 이야기도 담긴 『여행기』

이들은 각자의 목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했어요. 여행 기록에는 직접 본 것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낱말 | **선교사**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Q18 몽골은 다른 민족을 차별했다면서, 다른 종교는 왜 받아들였나요?

답 여러 종교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 제국 운영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몽골 지배자들은 대체로 다른 종교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어요. 제국 안에서는 불교·이슬람교·크리스트교 등 여러 종교가 함께 존재했어요. 원의 황실은 특히 티베트 불교를 후원했어요.

종교를 믿도록 허용하는 일과 관리가 될 기회나 정치적 지위를 평등하게 주는 일은 달라요. 그래서 종교에 관대한 태도와 몽골 제일주의가 함께 나타날 수 있었어요.

종교와 정치적 대우

종교	정치
여러 종교를 믿는 것을 대체로 허용 불교·이슬람교·크리스트교 등, 황실은 티베트 불교 후원	**관직과 지위는 집단에 따라 차등** 몽골 제일주의

종교의 허용 ≠ 정치적 평등

낱말 | **관대하다** 자신과 다른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허용하다

Q19 교과서에 이슬람 과학과 수시력이 함께 나오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답 원에서 중국의 기존 과학과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이 함께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학·천문학·의학 등이 발달했어요. 원에는 이슬람 세계의 학자와 관측 기구, 지식이 들어와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어요. 원에서는 하늘을 관측하는 시설인 천문대도 만들었어요.

원에서는 중국인 학자 **곽수경** 등이 천체를 관측하고 계산하여 **수시력**을 만들었어요. 수시력은 날짜와 계절을 정하는 역법이에요. 농사 시기와 나라의 행사를 정하려면 정확한 달력이 필요했어요. 중국에서 쌓아 온 관측과 계산의 전통도 중요한 바탕이었어요.

원에서의 천문학 발전

이슬람 세계에서 들어온 천문학·관측 기구 + 중국에서 쌓아 온 관측·계산

↓

원에서 천문학 발전 → 곽수경 등이 수시력 제작

✗ 수시력 = 이슬람 달력을 그대로 가져온 것

○ **수시력 = 외부 지식의 영향과 중국의 관측·계산을 바탕으로 원에서 만든 역법**

낱말

이슬람 세계 이슬람교가 널리 퍼진 여러 지역
천문학 해·달·별 등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학문
역법 달력을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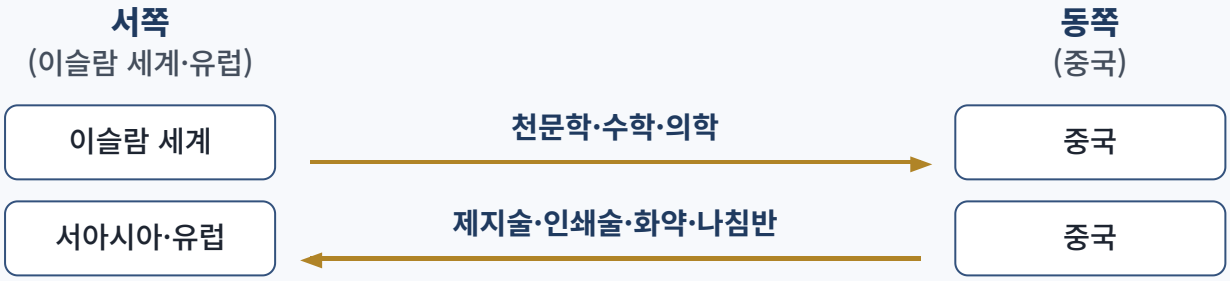
Q20 화약·나침반·인쇄술은 몽골 사람들이 발명해 유럽에 전했나요?

답 아니에요. 중국에서 앞서 발달한 기술이 오랜 교류를 거쳐 서쪽으로 알려졌고, 몽골 시대의 교류 확대도 그 과정에 도움이 되었어요.

교과서에서 '동서 문화 교류'라고 할 때, 동쪽은 중국 등 동아시아를, 서쪽은 중앙아시아·서아시아와 유럽 등을 가리켜요. 지식과 기술은 양쪽 방향으로 오갔어요.

제지술처럼 몽골 시대보다 앞서 서쪽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기술도 있어요. 아래 도식은 오랫동안 이어진 교류의 큰 방향을 보여 줘요.

지식과 기술의 이동



✗ 몽골 사람들이 화약·나침반·인쇄술을 발명했다.

◎ **중국에서 먼저 발달한 기술이 교류를 거쳐 서쪽으로 전해졌다.**

낱말 |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

Q21 기술자와 학자들은 모두 자기가 원해서 이동했나요?

답 아니에요.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거나 초청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복 과정에서 강제로 옮겨진 사람도 있었어요.

지배자들은 무기·옷감·그릇 등을 잘 만드는 기술자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여러 지역 출신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서로의 재료와 방법을 알게 되고 새로운 물건과 지식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술이 퍼졌다는 결과만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경험까지 모두 좋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쟁 중에 붙잡혀 살던 곳을 떠나야 한 기술자도 있었어요. 교류의 성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은 일을 보아야 해요.

Q22 ‘몽골의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몽골의 지배 아래 교통로가 정비되고 장거리 교역이 활발해진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을 **팍스 몽골리카**라고도 해요. 넓은 지역의 길과 연락망이 이어지고 상인과 사절의 이동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먼 지역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전쟁과 파괴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몽골계 세력끼리도 싸웠고, 역참과 전쟁에 물자를 대는 백성의 부담도 있었어요.

교류의 성과	그 뒤에 있던 피해와 부담
교통로 정비, 장거리 교역 활발	정복 전쟁의 파괴와 인명 피해
기술·지식의 전파	전쟁 중 붙잡혀 강제로 옮겨진 기술자
역참으로 연락·이동이 편리	말·음식을 대야 했던 주민의 부담

✗ 몽골의 평화 = 전쟁이 없던 시대

◎ **몽골의 평화 = 길이 이어져 먼 지역끼리 교류가 활발해진 상황**

⑤ 원의 쇠퇴와 그 뒤

왜 약해졌나 Q23 → 1368년 뒤에는? Q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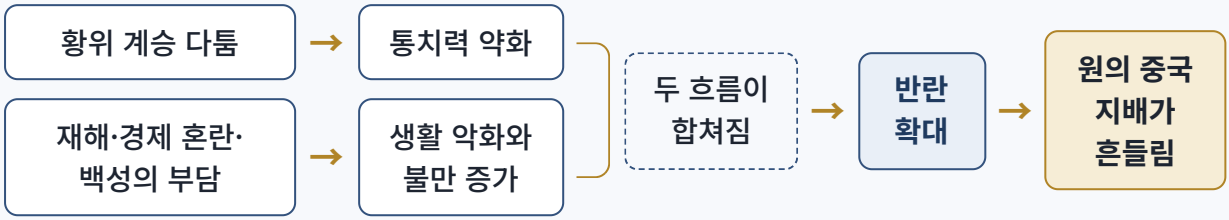
Q23 교역이 활발했던 원은 왜 약해졌나요?

답 황위 다툼과 자연재해, 경제 혼란과 백성의 부담이 겹치고, 큰 반란까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쿠빌라이 칸이 죽은 뒤에는 황제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어요.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는 농사와 생활을 어렵게 했어요. 나라의 지출을 감당하려고 교초를 지나치게 발행한 일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리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같은 액수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 거예요.

세금과 공사에 동원되는 부담, 차별에 대한 불만도 쌓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홍건적의 난**처럼 많은 한족 농민 등이 참여한 봉기가 일어났어요. 원의 쇠퇴를 '민족 차별 하나 때문'이나 '교초 하나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어려움이 겹치다



교초의 지나친 발행과 물가



낱말 | **홍건적** 붉은 두건을 두른 반란 세력

Q24 1368년에 원이 물러났으면 몽골 사람들과 교역로도 사라졌나요?

답 아니에요. 원 세력은 북쪽으로 물러나 존속했고, 여러 지역의 교역도 이어졌어요.

반란 세력 가운데 성장한 **주원장**은 1368년 **명**을 세웠어요. 같은 해 명의 군대가 대도를 차지하자 원의 황실은 북쪽으로 물러났어요. 교과서의 '원 멸망'은 이처럼 원의 중국 지배가 끝난 것을 가리켜요.

여러 지역의 교역은 이어졌지만, 길을 관리하는 세력과 교류의 조건은 달라졌어요. 명과 청이 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음 단원에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 1368년 원 멸망 = 몽골 사람들이 사라짐

◎ **원의 중국 지배가 끝나고, 황실은 북쪽 초원으로 물러남**

확인 문제

01~20은 맞는 답을 하나만 고르세요.

① 초원에서 큰 제국으로

확인 01

몽골 초원의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한 주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새로 팔 물건을 찾아 시장을 옮겼기 때문이에요.
② 가축의 풀과 물을 찾아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에요.
③ 새로 지을 성을 찾아 군대를 옮겼기 때문이에요.
④ 곡식의 수확을 따라 농지를 옮겼기 때문이에요.

확인 02

1206년 몽골 제국의 수립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쿠빌라이가 여러 부족을 묶고 원의 국호를 정했어요.
② 테무친이 남송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통일을 끝냈어요.
③ 쿠빌라이가 대도를 떠나서 북쪽 초원으로 물러났어요.
④ 테무친이 여러 부족을 묶고 칭기즈 칸으로 추대됐어요.

확인 03

몽골 군대가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기마병의 빠른 이동과 짜임새 있는 군사 조직
② 모든 집단을 같은 지위로 대우하는 통치 정책
③ 교초의 세계적 사용과 항구에 모인 외국 상선
④ 각 부대가 명령 없이 따로 싸우는 전투 방식

확인 04

1271년과 1279년의 사건을 맞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1271년에는 남송 정복, 1279년에는 국호를 원으로 정함
② 1271년에는 몽골 통합, 1279년에는 국호를 원으로 정함
③ 1271년에는 원의 국호, 1279년에는 남송 정복으로 통일
④ 1271년에는 명의 건국, 1279년에는 원의 황실이 북상함

확인 05

원과 다른 몽골계 세력의 관계를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원은 서아시아에 있고 일 한국은 중국에 있었어요.
② 같은 제국에서 나왔지만 서로 전쟁도 벌였어요.
③ 원의 지방 관청으로서 같은 관리가 다스렸어요.
④ 서로 다른 제국에서 나와 처음부터 대립했어요.

② 원은 중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확인 06

원이 중국의 통치 제도를 받아들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많은 농경민과 여러 도시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② 몽골의 풍습을 중국의 법으로 없애려 했기 때문이에요.
③ 중국의 농경지를 초원의 목장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이에요.
④ 모든 집단에 관리가 될 기회를 똑같이 주려 했기 때문이에요.

확인 07

몽골 제일주의의 뜻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말을 잘 타는 능력으로 관리의 순서를 정하는 것
② 몽골의 종교를 기준으로 주민의 직업을 정하는 것
③ 중국의 문화를 기준으로 모든 주민을 대우하는 것
④ 몽골인의 정치적 우위를 지키며 집단을 차별하는 것

확인 08

색목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주로 남송에 살다가 정복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② 주로 금의 지배를 받던 북부 주민들을 가리켜요.
③ 중앙아시아·서아시아 등 여러 출신을 가리켜요.
④ 몽골인 중 눈 색깔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확인 09

원의 한인과 남인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한족도 정복 전 살던 나라에 따라 다르게 구분됐어요.
② 한인은 한국 출신이고 남인은 중국 출신으로 구분됐어요.
③ 한인은 상인이 되고 남인은 관리가 되는 것으로 구분됐어요.
④ 한인은 이슬람교를, 남인은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 나눴어요.

③ 사람과 상품이 오가는 길

확인 10

역참을 설치한 본래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① 상인에게 지폐를 발행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일
② 농민에게 목화를 보급하고 재배법을 가르치는 일
③ 관리와 사신의 이동을 돕고 소식을 전달하는 일
④ 장인에게 작업장을 주고 그릇을 생산하게 하는 일

확인 11

패자와 역참을 맞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교초를 많이 내면 패자 없이 역참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②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이 역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③ 여행길에 오른 사람이라면 역참의 말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④ 한인과 남인만 패자를 받아 역참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확인 12

유라시아·인도양 교역권이 형성되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① 비단길에서 쓰던 교초가 모든 항구의 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② 인도양의 여러 나라가 원의 지방 관청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③ 초원길의 역참들이 인도양의 항구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④ 육지와 바다의 여러 지역이 거래로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확인 13

교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몽골이 처음 만든 지폐로 유럽까지 같은 돈으로 쓰였어요.
② 금속으로 만든 증표로 역참을 이용할 자격을 나타냈어요.
③ 원에서 널리 쓴 지폐로 나라가 사용을 뒷받침했어요.
④ 종이로 만든 허가증으로 선교사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확인 14

원의 도시에서 유행한 잡극은 어떤 것이었나요?

① 노래와 대사, 춤과 연기가 어우러지는 공연
②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계산해 만드는 달력
③ 말과 식사,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교통 시설
④ 세금과 지출, 나라의 재산을 기록하는 장부

④ 물건과 함께 이동한 지식과 문화

확인 15

여행자와 그 활동을 맞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마르코 폴로 — 모로코에서 출발한 이슬람교도 여행자
② 이븐 바투타 — 원의 국호를 정하고 중국을 통일한 군주
③ 카르피니 — 취안저우에 살며 교초를 발행한 재정 관리
④ 마르코 폴로 — 원을 다녀온 경험 등을 전한 베네치아인

확인 16

원의 종교에 대한 태도와 집단 차별을 함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종교를 허용한 만큼 관리가 될 기회도 똑같이 주었어요.
② 여러 종교를 허용해도 정치적 지위에는 차이를 두었어요.
③ 몽골인을 우대하려고 다른 종교의 활동을 모두 막았어요.
④ 외국인을 관리로 쓰려고 몽골인의 전통 신앙을 없앴어요.

확인 17

수시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곽수경 등이 천체를 관측하고 계산해 만든 역법이에요.
②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도시를 기록하여 만든 여행기예요.
③ 쿠빌라이가 이동하는 사신에게 지급한 통행 증표예요.
④ 이슬람의 달력을 수정하지 않고 가져와 쓴 역법이에요.

확인 18

몽골 시대를 전후한 문화 교류를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중국의 제지술은 원에서 처음 발명되어 서쪽으로 전해졌어요.
② 이슬람의 천문학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서쪽으로 전해졌어요.
③ 중국의 화약은 이븐 바투타가 혼자서 유럽으로 전해 주었어요.
④ 이슬람의 과학과 중국의 기술이 여러 길을 따라 오갔어요.

확인 19

몽골 시대의 기술자 이동을 이해한 말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지배자가 후원했으므로 기술자들은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② 이동이 편리해졌으므로 기술자들은 스스로 길을 떠났어요.
③ 기술이 퍼진 과정에는 강제로 옮겨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④ 정복 전쟁이 있었으므로 지역 간 기술 교류는 멈추었어요.

⑤ 원의 쇠퇴와 그 뒤

확인 20

원의 쇠퇴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교초의 발행을 줄여 물가가 오르자 백성의 반란이 커졌어요.
② 황위 다툼과 재해, 경제 혼란이 겹치며 백성의 반란이 커졌어요.
③ 한인과 남인의 차별만으로 무너져 재해와 경제는 관련없었어요.
④ 홍건적이 원을 도와 반란을 막았지만 명의 공격으로 약해졌어요.

종합

확인 21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로 쓰세요.

ㄱ. 원이 남송을 정복하여 중국을 통일함

ㄴ. 칭기즈 칸이 몽골 제국을 세움

ㄷ. 명이 세워지고 원의 황실이 북쪽으로 물러남

ㄹ. 쿠빌라이 칸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정함

답: (_____) → (_____) → (_____) → (_____)

확인 22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쓰세요. 쓰이지 않는 말도 있어요.

보기 **교초 · 역참 · 패자 · 게르**

① 길을 따라 말과 숙식 등을 제공한 교통·통신 시설: (_____)

② 지배자에게서 받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_____)

③ 원에서 널리 사용한 지폐: (_____)

확인 23

보기에서 각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골라 쓰세요. 쓰이지 않는 말도 있어요.

보기 **잡극 · 수시력 · 원곡 · 천호제**

① 노래·대사·춤·연기가 어우러진 원대의 공연: (_____)

② 원에서 곽수경 등이 천체를 관측하고 계산해 만든 역법: (_____)

확인 24

괄호 안에서 맞는 말을 골라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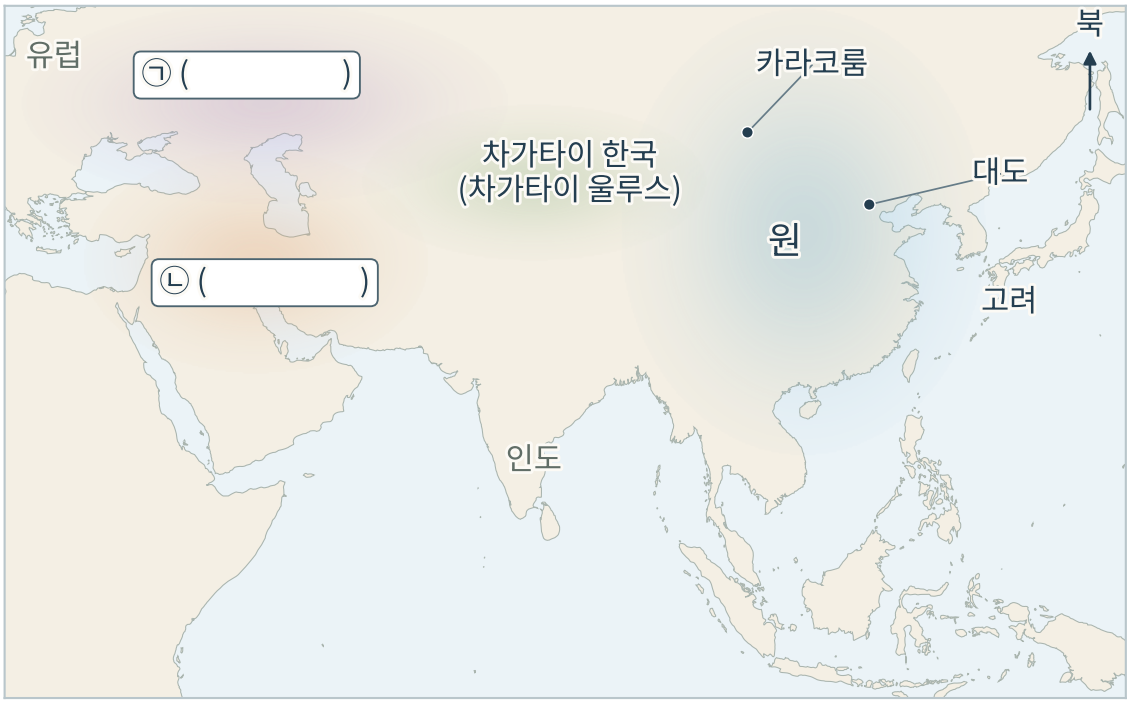
1368년 주원장은 (명 / 청)을 세웠어요. 원의 황실은 (북쪽 / 남쪽)으로 물러났어요. 교과서의 '원 멸망'은 (원의 중국 지배가 끝난 것 / 몽골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뜻해요.

확인 25

지도에서 ㉠·㉡에 들어갈 세력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쓰이지 않는 말도 있어요.

보기 원 · 킵차크 한국 · 일 한국 · 차가타이 한국

몽골 제국의 주요 세력 — 빈칸 지도



13세기 후반~14세기 초 · 주요 세력의 위치

옅은 색: 세력이 자리 잡은 대략적인 지역

㉠ (_____)　　㉡ (_____)

정답·해설

확인 01 정답 ②

① **아니에요.** 상인도 이동했지만, 유목 생활의 기본 목적을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② **맞아요.**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의 사정에 따라 생활하는 곳을 옮겼어요.

③ **아니에요.** 성을 짓거나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동과 유목 생활은 달라요.

④ **아니에요.** 유목은 농지를 옮겨 곡식을 기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생활이에요.

다시 읽기 Q01

확인 02 정답 ④

① **아니에요.** 쿠빌라이가 국호를 원으로 정한 것은 1271년이에요.

② **아니에요.** 남송 정복은 칭기즈 칸의 후계자 쿠빌라이 때인 1279년의 일이에요.

③ **아니에요.** 원의 황실이 대도를 떠나 북쪽으로 물러난 것은 1368년이에요. 그때의 황제는 쿠빌라이가 아니에요.

④ **맞아요.** 테무친은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1206년에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어요.

다시 읽기 Q02·Q06

확인 03 정답 ①

① **맞아요.** 기마병의 빠른 이동과 천호제를 바탕으로 한 군사 조직이 함께 작용했으며, 다른 지역의 병력과 기술도 활용했어요.

② **아니에요.** 원은 모든 집단을 같은 지위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집단을 평등하게 대우한 정책이 정복의 힘이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③ **아니에요.** 교초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통용된 돈이 아니며, 교초와 상선만으로 군사적 성공을 설명할 수 없어요.

④ **아니에요.** 지휘자가 명령을 전달하여 여러 부대가 함께 움직이도록 했어요. 각 부대가 명령 없이 따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3

확인 04 정답 ③

① **아니에요.** 두 사건의 순서를 거꾸로 연결했어요.

② **아니에요.** 칭기즈 칸의 몽골 통합과 제국 수립은 1206년의 일이에요.

③ **맞아요.** 1271년에 국호를 원으로 정했고, 8년 뒤 남송을 정복하여 중국을 통일했어요.

④ **아니에요.** 명 건국과 원 황실의 북쪽 이동은 1368년의 일이에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5 정답 ②

① **아니에요.** 원은 중국과 몽골 고원 등을, 일 한국(훌라구 울루스)은 이란 등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스렸어요.

② **맞아요.** 같은 몽골 제국에서 나왔으나 점차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교류하거나 싸웠어요.

③ **아니에요.** 다른 한국들을 모두 원의 지방 관청으로 볼 수 없어요.

④ **아니에요.** 이들은 서로 무관한 제국에서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몽골 제국에서 나왔어요.

다시 읽기 **Q05**

확인 06 정답 ①

① **맞아요.** 세금과 주민을 관리하고 농경지와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활용했어요.

② **아니에요.** 중국식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몽골의 풍습과 전통을 지켰어요.

③ **아니에요.** 통치 제도를 받아들인 목적을 농경지를 목장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④ **아니에요.** 원은 몽골 제일주의를 실시하여 집단에 따라 차등을 두었어요.

다시 읽기 **Q07·Q08**

확인 07 정답 ④

① **아니에요.** 능력 시험의 순위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② **아니에요.** 종교에 따라 직업을 나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③ **아니에요.**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과 몽골 제일주의는 다른 설명이에요.

④ **맞아요.** 몽골인을 가장 우대하고 다른 집단과 차이를 둔 지배 정책이에요.

다시 읽기 **Q08**

확인 08 정답 ③

① **아니에요.** 주로 남송의 지배를 받던 주민들은 남인으로 분류되었어요.

② **아니에요.** 금의 지배를 받던 북부의 한족·거란인·여진인 등은 주로 한인으로 분류되었어요.

③ **맞아요.** 색목인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출신의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④ **아니에요.** 색목인을 단순히 눈 색깔로 구분한 사람들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시 읽기 **Q09·Q10**

확인 09 정답 ①

① **맞아요.** 한족이라도 금의 지배를 받았는지 남송의 지배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었어요.

② **아니에요.** 이 단원의 한인은 오늘날 한국인을 뜻하지 않아요.

③ **아니에요.** 직업 두 가지로 집단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④ **아니에요.** 종교 하나만으로 한인과 남인을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0**

확인 10 정답 ③

① **아니에요.** 교초를 발행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금융 시설을 뜻하지 않아요.

② **아니에요.** 목화와 농업 기술의 보급은 농업 정책이며, 역참의 본래 목적과 달라요.

③ **맞아요.** 역참은 공적인 이동과 연락을 돕는 교통·통신 시설이었어요.

④ **아니에요.** 그릇을 만드는 작업장이 아니라 길을 따라 이동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다시 읽기 **Q12**

확인 11 정답 ②

① **아니에요.** 패자는 역참 소유권을 돈으로 사는 제도가 아니에요.

② **맞아요.** 패자 등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정해진 말·음식·잠자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③ **아니에요.** 모든 여행자가 역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④ **아니에요.** 역참 이용 자격이 한인과 남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3**

확인 12 정답 ④

① **아니에요.** 교역권이 형성되어도 모든 나라가 하나의 화폐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② **아니에요.** 교역으로 연결된 지역과 원의 영토는 같지 않아요.
③ **아니에요.** 육지의 역참이 모두 항구로 옮겨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④ **맞아요.** 유라시아의 육상 교역망과 인도양의 해상 교역망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기 **Q14·Q15**

확인 13 정답 ③

① **아니에요.** 원 이전의 송에서도 지폐를 썼으며, 교초가 세계의 공통 화폐였던 것은 아니에요.
② **아니에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패자예요. 교초는 돈이에요.
③ **맞아요.** 나라가 돈으로 쓰도록 정하고 사람들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했어요.
④ **아니에요.** 교초는 선교사 전용 허가증이 아니라 지폐예요.

다시 읽기 **Q13·Q15**

확인 14 정답 ①

① **맞아요.** 잡극은 노래·대사·춤·연기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도시 문화의 한 모습이에요.
② **아니에요.** 날짜와 계절을 정하는 역법은 수시력과 관련 있어요.
③ **아니에요.** 말과 숙식 등을 제공한 교통 시설은 역참이에요.
④ **아니에요.** 재정 장부가 아니라 무대에서 펼치는 공연이에요.

다시 읽기 **Q16**

확인 15 정답 ④

① **아니에요.** 모로코 출신 이슬람교도 여행자는 이븐 바투타예요.
② **아니에요.** 원의 국호를 정하고 중국을 통일한 인물은 쿠빌라이 칸이에요.
③ **아니에요.** 카르피니는 교황의 사절로 몽골 지배자를 만나러 간 수도사예요.
④ **맞아요.**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출신으로, 그의 경험 등은 『동방견문록』에 담겼어요.

다시 읽기 **Q17**

확인 16 정답 ②

①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것을 허용하는 일과 관리 진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일은 달라요.

② **맞아요.** 종교에 관대한 태도와 몽골 제일주의는 함께 나타날 수 있었어요.

③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활동을 모두 막은 것이 아니라 대체로 허용했어요.

④ **아니에요.** 외국 출신 인재를 활용하면서도 몽골의 전통과 신앙을 유지했어요.

다시 읽기 **Q18**

확인 17 정답 ①

① **맞아요.** 수시력은 원에서 만든 역법으로, 중국의 관측과 계산 전통도 바탕이 되었어요.

② **아니에요.** 여행기는 『동방견문록』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③ **아니에요.** 이동하는 사람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패자와 관련돼요.

④ **아니에요.** 수시력은 이슬람의 달력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9**

확인 18 정답 ④

① **아니에요.** 제지술은 원 이전에 발달했고, 서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도 몽골 시대 이전이에요.

② **아니에요.** 본문은 이슬람 세계에서 발달한 천문학 등이 중국에 들어왔다고 설명해요.

③ **아니에요.** 기술 전파를 한 여행자가 혼자 이루었다고 설명할 수 없어요.

④ **맞아요.** 여러 지역과 사람을 거치며 양방향으로 교류했어요. 기술마다 전파 시기와 경로도 달랐어요.

다시 읽기 **Q20**

확인 19 정답 ③

① **아니에요.** 지배자의 후원이 있었다고 모든 기술자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② **아니에요.** 스스로 이동한 사람도 있지만, 강제로 옮겨진 사람도 있었어요.

③ **맞아요.** 교류의 성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강제로 이동한 사람들의 경험도 살펴야 해요.

④ **아니에요.** 전쟁이 피해를 남겼지만, 그 뒤와 그 과정에서 사람과 기술의 이동도 일어났어요.

다시 읽기 **Q21·Q22**

확인 20 정답 ②

① **아니에요.** 교초를 줄여 발행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발행이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어요.

② **맞아요.**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겹쳤고, 홍건적의 난 같은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③ **아니에요.** 민족 차별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재해와 경제 혼란 등 여러 원인이 겹쳤어요.

④ **아니에요.** 홍건적은 원을 도와 반란을 막은 세력이 아니라 원에 저항한 반란 세력이에요.

다시 읽기 **Q23**

확인 21 정답 **ㄴ → ㄹ → ㄱ → ㄷ**

몽골 제국 수립은 1206년, 국호를 원으로 정한 것은 1271년, 남송 정복은 1279년, 명 건국과 원 황실의 북쪽 이동은 1368년이에요. 나라 이름을 원으로 정한 해와 중국을 통일한 해는 달라요.

다시 읽기 **Q02·Q06·Q24**

확인 22 정답 **① 역참 ② 패자 ③ 교초**

역참은 **시설**, 패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교초는 **돈**이에요. 같은 시대에 함께 나와도 역할은 서로 달라요. 쓰이지 않은 게르는 해체하여 옮길 수 있는 집이에요.

다시 읽기 **Q12·Q13·Q15**

확인 23 정답 **① 잡극 ② 수시력**

잡극은 노래·대사·춤·연기가 어우러진 공연이에요. 수시력은 날짜와 계절을 정하는 역법이에요. 원곡은 잡극의 대본과 노래 가사를 아우르는 문학이고, 천호제는 군사와 백성을 조직한 제도이므로 이 빈칸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읽기 **Q03·Q16·Q19**

확인 24 정답 **명 / 북쪽 / 원의 중국 지배가 끝난 것**

주원장은 명을 세웠어요. 원의 황실은 북쪽으로 물러나 존속했으므로 몽골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 멸망은 원의 중국 지배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기 **Q24**

확인 25 정답 **㉠ 킵차크 한국 ㉡ 일 한국**

㉠은 러시아 남부 등에 자리 잡은 킵차크 한국(주치 울루스), ㉡은 이란 등 서아시아에 자리 잡은 일 한국(훌라구 울루스)이에요. 원은 중국·몽골 고원 등에, 차가타이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았어요.

다시 읽기 **Q05**